

기술 2024-129

2024.08.16.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화학

# LX하우스(10867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하상수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IRTV)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X하우시스(108670)

건축자재 및 자동차 소재부품 제조 전문 기업

## 기업정보(2024.08.06. 기준)

|      |                       |
|------|-----------------------|
| 대표자  | 한명호                   |
| 설립일자 | 2009년 04월 02일         |
| 상장일자 | 2009년 04월 20일         |
| 기업규모 | 대기업                   |
| 업종분류 | 플라스틱 창호<br>제조업        |
| 주요제품 | Z:IN, 하이막스,<br>뉴트렉스 등 |

## 시세정보(2024.08.06. 기준)

|            |            |
|------------|------------|
| 현재가(원)     | 41,100원    |
| 액면가(원)     | 5,000원     |
| 시가총액(억 원)  | 3,686억 원   |
| 발행주식수      | 8,967,670주 |
| 52주 최고가(원) | 54,300원    |
| 52주 최저가(원) | 36,600원    |
| 외국인지분율     | 15.42%     |
| 주요주주       |            |
| LX홀딩스 외 2인 | 33.63%     |
| 국민연금기금     | 5.08%      |

## ■ 건축자재, 자동차 소재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 기업

LX하우시스(이하 동사)는 2009년 4월 LG화학의 산업재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창호와 바닥재,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용 필름 등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자체 브랜드 지인(Z:IN)을 기반으로 한 창호, 바닥재,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 사업으로 2023년 기준 동사 매출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플라스틱 창호·장판 산업

플라스틱 창호 산업은 건축물 개구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주원료인 플라스틱이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한편, 플라스틱 장판 사업은 고분자 수지를 고온에서 원하는 형태의 바닥 깔개로 제조하는 산업으로, 두 산업 모두 건축자재 산업으로 분류되어 건설 경기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제품 교체 주기가 길고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개발 및 품질 확보가 중요한 산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프리미엄 제품군 출시 및 B2B 사업 영역 확장

동사는 고품질, 고기능성 건축자재 제품군을 보유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최고급 창호 ‘론첼’과 다양한 개폐방식과 대형 창 제작이 가능한 ‘페네스트’ 등 여러 제품군을 지속 출시하여 신제품 기술력 강화를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론첼 갤러리’를 오픈하여 건설사,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B2B 영업 강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      | 매출액<br>(억 원) | 증감<br>(%) | 영업이익<br>(억 원) | 이익률<br>(%) | 순이익<br>(억 원) | 이익률<br>(%) | ROE<br>(%) | ROA<br>(%) | 부채비율<br>(%) | EPS<br>(원) | BPS<br>(원) | PER<br>(배) | PBR<br>(배) |
|------|--------------|-----------|---------------|------------|--------------|------------|------------|------------|-------------|------------|------------|------------|------------|
| 2021 | 34,597.9     | 13.9      | 704.5         | 2.0        | 126.6        | 0.4        | 1.5        | 0.5        | 195.0       | 1,309      | 86,527     | 47.0       | 0.7        |
| 2022 | 36,111.5     | 4.4       | 149.4         | 0.4        | -1,177.2     | -3.3       | -14.3      | -4.7       | 218.5       | -11,710    | 78,153     | -          | 0.4        |
| 2023 | 35,258.1     | -2.4      | 1,098.2       | 3.1        | 617.9        | 1.8        | 7.7        | 2.5        | 186.3       | 6,179      | 83,467     | 7.1        | 0.5        |

### 기업경쟁력

건축자재,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용 필름 제조 전문 기업

-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 지인(Z:IN)을 기반으로 창호, 바닥재, 벽지 등 여러 건축자재 제품 제공
- 뛰어난 촉감, 쿠션감 및 내마모성을 구비한 자동차 시트용 원단, 강화 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경량화 부품, 산업용 필름 제품군 보유

대형 인테리어 전시장을 통한 B2B 시장 확대 추진

- 동사의 최고급 시스템 창호 브랜드 '론첼', '페네스트' 등 유럽형 하이엔드 제품 전시를 통한 소비자 수요 충족 및 건설사·시행사 접근성 증대

###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건축자재

- 우수한 단열 성능을 확보한 창호, 안전한 바닥재,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등 다양한 건축자재 제품군 보유
- 국내 개보수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따른 주방, 욕실 등의 제품 라인업 확대 및 대형 전시장 운영을 통한 B2C 시장 확대

자동차 소재부품 / 산업용 필름

- 차량 인테리어 고급화,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따른 자동차 시트용 원단 제공
-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자동차 중량 절감에 기여하는 경량화 부품
- 냉장고, 세탁기, TV, 실외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내구성, 얼룩 방지, 내지문성을 지닌 산업용 필름

동사의 주요 사업

| 건축자재  |  | 자동차소재  |
|---|--|--|
| PVC 시스템창  | 친환경 벽지   | 자동차 시트용 원단   |
|  |  |  |

### 시장경쟁력

국내 플라스틱 창호 시장규모

| 년도    | 시장규모        | 연평균 성장률 |
|-------|-------------|---------|
| 2022년 | 1조 7,072억 원 | ▲0.48%  |
| 2027년 | 1조 7,489억 원 |         |

국내 플라스틱 장판 시장규모

| 년도    | 시장규모     | 연평균 성장률 |
|-------|----------|---------|
| 2022년 | 4,984억 원 | ▲0.14%  |
| 2027년 | 5,018억 원 |         |

시장환경

- 국내 플라스틱 창호 산업은 주원료인 석유화학제품에 영향을 받으며, 플라스틱 창호·장판 산업은 건축자재로 분류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건설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음
-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건설 경기침체에 따라 건축자재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시장 영향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I. 기업 현황

## 건축자재,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용 필름 제조 전문 기업

동사는 창호, 바닥재, 벽지, 단열재 등의 인테리어 자재, 건축자재와 자동차용 원단, 경량화 소재 등의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용 필름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 기업 개요

동사는 2009년 4월 LG화학의 산업재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9년 4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창호와 바닥재, 벽지, 단열재 등의 인테리어 자재, 건축자재, 자동차용 원단, 산업용 필름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에 본점, 국내 청주, 울산 등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 일자       | 내용   |
|----------|--|
| 2009.04. | LG하우시스 출범(LG화학 산업재 사업 부문 분할)                       |
| 2011.04. | 매장형 창호 전문점 'Z:IN 윈도우플러스' 사업 시작                     |
| 2012.09. | 울산 로이유리(Low-Emissivity) 생산공장 준공                    |
| 2014.09. | 유럽섬유환경인증(Oeko-tex standard 100) 1등급(Baby Class) 획득 |
| 2016.04. | 미국 자동차시트원단 생산공장 준공                                 |
| 2020.03. | 미국 인조대리석 공장 엔지니어드스톤 3호 생산라인 완공                     |
| 2021.07. | LX하우시스로 사명 변경                                      |
| 2023.09. | 멕시코 판매법인 신규 설립                                     |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최대주주는 LX홀딩스(33.53%)이며, 그 외 국민연금기금(5.08%), 한명호 대표이사(0.08%), 박장수 전무(0.02%)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주식이 61.29%이다. 한편,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해외 생산/판매 법인 및 건축물 청소 사업을 하는 9개의 비상장업체가 있다.

[표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 주주명    | 지분율(%) |
|--------|--------|
| LX홀딩스  | 33.53  |
| 국민연금기금 | 5.08   |
| 한명호    | 0.08   |
| 박장수    | 0.02   |
| 기타     | 61.29  |
| 합계     | 100.00 |

[표 3] 주요 계열사 현황

| 회사명                         | 주요사업       | 자산총액(백만원) |
|-----------------------------|------------|-----------|
| LX Hausys America, Inc.     | 미국 생산/판매법인 | 441,874   |
| LX Hausys (Wuxi) Co., Ltd.  | 중국 생산/판매법인 | 71,711    |
| LX Hausys Tianjin Co., Ltd. | 중국 생산법인    | 32,242    |
| (주)그린누리                     | 건축물 청소     | 1,769     |
| 그 외 5개 기업                   | 해외 생산/판매법인 | -         |

자료: 동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4.07.0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 ■ 대표이사 경력

한명호 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에서 화학공학 학사, 워싱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1983년 LG화학에 입사하여 2007년 LG 부사장을 맡았으며, 2009년 LG하우시스 대표이사, 2014년 한화L&C 대표이사, 2021년 한라엔컴 대표이사의 업무 경력을 거쳐 2023년 동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 ■ 주요 사업

동사는 건축자재 부문과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건축자재 부문의 주요 제품은 창호, 바닥재, 벽지, 단열재 등으로, 건축자재 사업이 동사 매출 비중의 70% 이상(2023년 기준)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자동차용 원단, 경량화 소재, 일반 부품 등의 자동차 소재 사업과 가구 및 창호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필름 사업이 있다.

## ■ 주요 고객사

동사의 주요 사업인 건축자재 부문 사업은 지에스건설, 현대자동차, 포스코이앤씨 등의 국내 우수 기업에 창호를 공급하거나, 전시장 및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대응해 B2C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주방, 욕실 등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대형 복합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리점/소매점 네트워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  |  |   |   |   |
|--|--|---|---|---|
|  <p>E<br/>환경경영</p>   |  <p>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기술 개선에 의한 폐기물 관리 및 제조 비용 절감</li> <li>◎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 영향 최소화 전략 수립</li> </ul>          |  <p>13 기후변화와 대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환경 법규 준수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저감 활동 수행</li> </ul> |
|  <p>S<br/>사회책임경영</p> |  <p>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의 복지제도 운영</li> <li>◎ 고충처리담당 상주인원을 통한 수시 상담 등 수행</li> </ul>                 |  <p>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인권, 성희롱, 괴롭힘 방지 교육 수행</li> </ul>             |
|  <p>G<br/>기업지배구조</p> |  <p>16 평화·정의·투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기업활동을 위한 윤리헌장 마련 및 사이버감사실 운영</li> <li>◎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관 및 이사회 등의 운영 시스템 구축</li> </ul> |   |   |

## II. 시장 동향

### 건설 경기에 민감하고 고객 수요에 따른 제품 개발이 필요한 플라스틱 창호·장판 산업

플라스틱 창호는 개구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의미하며, 주원료인 플라스틱이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및 환율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플라스틱 창호·장판 산업은 건축자재로 분류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건설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산업을 지속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기술력 개발이 요구되는 플라스틱 창호 산업

창호는 창문 및 창틀 등 건축물 벽면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의미한다. 플라스틱 창호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재료로 창호를 만든 구조물을 뜻한다. 건축자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국내 건설 경기, 계절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제품 교체 주기가 길고 품질 및 내구성 확보가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주원료인 플라스틱이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플라스틱 창호 시장의 후방산업은 플라스틱 수지 생산, 첨가제, 용제를 비롯한 원재료이고, 전방산업은 아파트, 빌딩, 전원주택 등의 건설업이다.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기능성 단열창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시 고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창호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소비자의 건축물 외관 차별화 수요 확대 등 다양한 수요 및 정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창호 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플라스틱 창호 산업의 전후방산업

| 후방산업  | 플라스틱 창호 산업   | 전방산업  |
|---|--|---|
|  |  |  |
| 플라스틱 수지, 첨가제, 안료, 용제 및 가공업체 등   | 플라스틱 창문, 문 등   | 아파트, 빌딩, 전원주택 등의 건설업  |

자료: Unsplash 이미지 사이트,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 고기능성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 중인 플라스틱 장판 산업

플라스틱 장판은 원료상태의 고분자 수지를 고온에서 용융시켜 일정 두께의 롤상 또는 타일상으로 제조한 플라스틱 바닥 깔개를 의미한다. 시공 편의성이 우수하여 주거 공간의 바닥재로 주로 쓰이며, 차음성과 충격흡수 기능이 있다. 국내 시장을 겨냥하여 열에 잘 견디도록 코팅된 온돌바닥 전용 장판, 다른 성분과 접착이 잘되는 UV코팅 및 저발포시트 처리가 된 장판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플라스틱 장판 산업은 플라스틱 창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국내 건설 경기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며, 브랜드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소비자들도 일부 건축자재의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여 목재, 석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장판 관련 기업에서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기능성 친환경 기능을 지닌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영향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플라스틱 장판 산업의 전후방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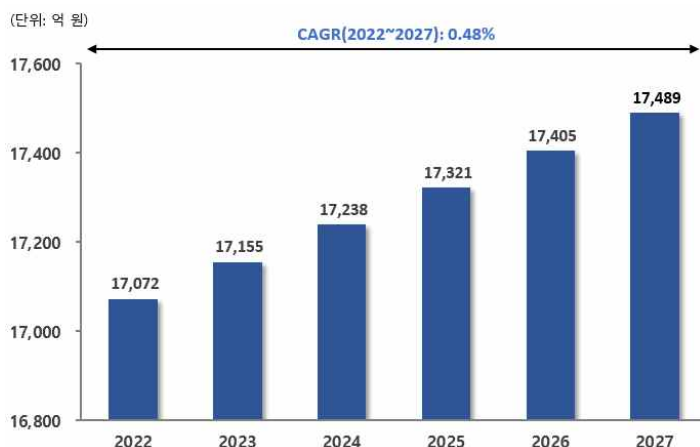
| 후방산업   | 플라스틱 장판 산업  | 전방산업   |
|--|---|--|
|  |  |  |
| 폴리염화비닐(PVC)  | PVC 장판  | 아파트, 주택 등 건설 및 인테리어 산업   |

자료: Unsplash 이미지 사이트,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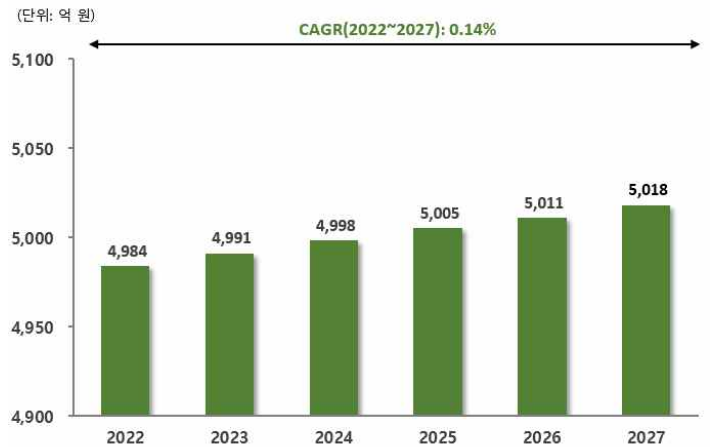
## ■ 시장 규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창호 시장은 2022년 1조 7,072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0.48% 성장하여 2027년 1조 7,489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내 플라스틱 장판 시장은 2022년 4,984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0.14% 증가하여 2027년 5,018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국내 플라스틱 창호 시장규모



[그림 2] 국내 플라스틱 장판 시장규모



자료: 통계청(2022), NICE디앤비 재구성

자료: 통계청(2022), NICE디앤비 재구성

## ■ 경쟁사 분석

플라스틱 창호·장판과 같은 건축자재는 내수 중심의 산업으로 제품 교체 주기가 긴 특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제품 개발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한 산업이다. 대규모 물량의 적기 공급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보관 등을 위한 토지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 등 시장침체에 따른 내수회복 중 수익 확보가 어려워 해외시장 개척이 요구되나, 글로벌 수준의 제품 품질, 기술력, 현지 마케팅 전략 및 현지 직접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업 운영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동사와 같은 플라스틱 창호·장판 업종 업체로는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등이 있다.

케이씨씨는 1958년 8월 건축자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강스레트공업으로 설립하였으며, 1973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2005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케이씨씨는 석고보드, 마이톤(암면흡음천장판), 미네랄울(암면) 등의 건축자재와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산업용 및 가정용 도료 사업, 생활용품 및 각종 산업에 사용되는 실리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건축자재의 시장공급 확대를 위해 석고텍스(석고천장판) 및 그라스울(유리면) 자재 신규 라인을 증설하고, 2021년 하이엔드(High-End)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를 공식 런칭하여 하이엔드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공략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대L&C는 1965년 8월 한국화성공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10월 한화L&C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14년 7월 한화L&C 전자재 부문이 분리되면서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8년 12월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되면서 현재 사명으로 변경되었다. 바닥재, 벽지, 창호 등의 건축자재 사업과 친환경 데코필름 제조 기술 기반의 필름 및 데코 마감재 등의 고기능성 마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규 친환경 바닥재를 출시하고, 중국 인테리어 박람회 '디자인 상하이 2024'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 기반 내실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표 6] 국내 플라스틱 창호·장판 산업 경쟁업체 현황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 회사명    | 사업부문                      | 매출액      |          |          | 기본정보 및 특징(2023.12. 기준)   |
|--------|---------------------------|----------|----------|----------|--|
|        |                           | 2021     | 2022     | 2023     |  |
| LX하우시스 | 건축자재,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용 필름 사업 | 34,597.9 | 36,111.5 | 35,25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코스피 상장(2009.04.20.)</li> <li>· 창호,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및 자동차소재/필름 제조</li> <li>· R&amp;D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 혁신 및 고객 접점 확대 활동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li> </ul>   |
| 케이씨씨   | 건축자재, 도료, 실리콘 사업          | 58,748.9 | 67,747.9 | 62,88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코스피 상장(1973.06.25.)</li> <li>· 석고보드, 미네랄울, PVC 창호재 등 여러 건축자재 생산, 그 외 도료 및 실리콘 등 여러 사업 진행 중</li> <li>· 2021년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 공식 런칭, 프리미엄 창호 전시장 'The Klenze Gallery'를 오픈</li> </ul> |
| 현대L&C  | 플라스틱 창호 사업                | 8,459.0  | 8,320.3  | 8,40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li> <li>· 바닥재, 벽지, 창호 등 건축자재 및 고기능성 마감재 제조</li> <li>·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REHAU) R-900', 자동환기창 '스마트 에어 시스템' '2023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 디자인 선정</li> </ul>  |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2023.12.) 및 감사보고서, NICE디앤비 재구성



### III. 기술분석

#### 고품질, 고기능성 건축자재 및 자동차 소재부품 제조 기술 구축

동사는 창호,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사업과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용 필름 사업을 통해 건축, 자동차, 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인 건축자재 부문은 자체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 지인(Z:IN)을 통해 여러 창호, 벽지, 바닥재 등의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여러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따라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는 등 B2C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 ■ 기술 개요 및 주요 서비스

동사는 창호, 바닥재, 벽지,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 사업과 자동차용 원단, 경량화 소재 부품, 가구/창호 및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산업용 필름 관련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동사 매출 비중의 70% 이상이 동사의 주요 상표 제품인 지인(Z:IN), 하이맥스, 비아테라 등의 건축자재 관련 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를 가정용 표면마감재, 자동차 부품 및 내장 마감 원단과 같은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용 필름 관련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 ■ 고품질, 고기능성의 프리미엄 건축자재 제품 제공

동사는 석유화학 기초소재 등을 가공하여 창호, 벽지,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와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용 필름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사업분야는 건축자재 산업으로 건축자재 관련 고객에게 새로운 생활의 가치와 영감, 앞선 트렌드 제시를 위한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 지인(Z:IN)을 2006년에 런칭하였다. 동사는 지인(Z:IN) 브랜드를 통해 우수한 단열 성능을 확보한 창호, 안전한 바닥재와 벽지,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등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건축장식자재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친환경·에너지세이빙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개보수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B2C 토탈 인테리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국내 주방, 욕실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형 복합 전시장을 운영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침체로 인해 전시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리점/소매점 네트워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고품질의 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그림 3] 동사 건축자재 제품 예시



PVC 시스템창  
유로시스템9 Lift & Slide



친환경 벽지  
T1093-01



바닥재 에디션 스톤  
EDT7731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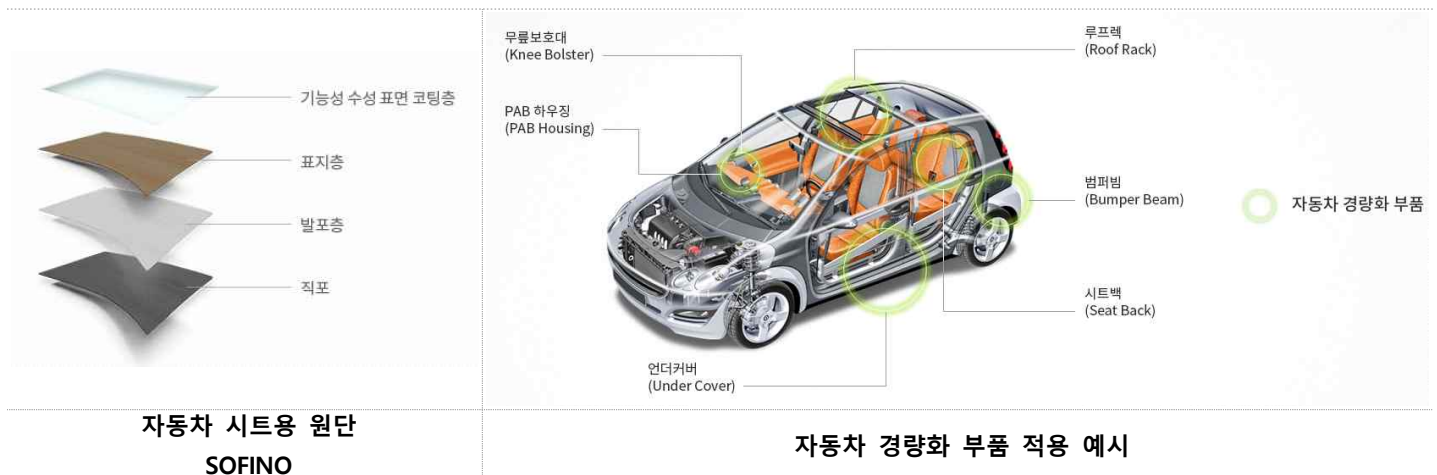
## ■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 중인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용 필름 제품군

동사는 창호, 벽지 등의 건축자재 사업 외에도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용 필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차량 인테리어 소재의 고급화와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능성 원단과 경량화 소재 부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자동차 시트용 원단, 인테리어 부품, 자동차 중량 절감에 기여하는 경량화 부품 등의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자동차 시트용 원단 제품군으로는 뛰어난 촉감과 쿠션감을 구현한 ‘SOFINO’, 천연 가죽 질감을 구현한 ‘VERNO’, 송아지 가죽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구현한 인조 피혁 ‘Calfpelle’, 실리콘으로 구성된 고등급의 인조피혁 ‘LUSSINO’ 등이 있다.

동사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여 자동차 중량 절감에 기여하고, 스틸 강성은 유지하며 연비 개선 및 친환경에 기여하는 자동차 경량화 부품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제품군별로 경량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스틸 대비 25%의 무게 감소 효과를 보이며 설계 최적화를 통한 부품수 절감으로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는 장섬유복합재 ‘LFT(Long Fiber Thermoplastic)’, 동사의 자체 개발 소재인 ‘CFT(Continuous Fiber Thermoplastic)’, ‘WLC(Wet Laid Composite)’ 등이 있으며, 무릎보호대, PAB 하우징, 차량 하부 노이즈를 방지하는 언더커버, 루프랙, 후방 충돌 시 충격 흡수로 탑승자를 보호하는 범퍼빔 등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동사 자동차 소재부품 관련 제품 예시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동사는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 인테리어필름과 가구용 데코필름, 가전필름, 광고용 필름 등의 산업용 필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재활용 PET를 활용한 친환경 가구용 필름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문이 남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동사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가전제품의 표면을 보호하고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얼룩방지, 내스크래치, 내지문, 고신율의 성능을 보유한 가전필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외 디스플레이, 사인, 전시스탠드 및 자동차 광고와 튜닝을 위한 시트제품 S&G(Sign&Graphic)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동사 산업용 필름 제품군 예시



가전필름 적용 예시

회의실 Window 및 자동차 도장 예시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 동사의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원천·기반 기술 연구와 신사업 발굴 준비,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와 디자인 트렌드 분석 및 디자인 솔루션 연구를 수행하는 디자인 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신기술, 신사업 분야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미래준비 부서, 에너지 절감형, 사물인터넷 기반, 코팅 유리 개발 등을 진행하는 창호 부서, 고분자 가공 기술 기반 건강재 및 단열 소재를 연구하는 장식재 부서, 표면소재 부서, 산업용 필름 부서, 자동차소재부품 부서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천연석의 세밀한 Vein을 부여한 인조대리석인 솔리드 서피스 개발, 연속유리 섬유 자동차 경량화 부품 개발, 국내 난방 환경에 최적화된 신소재 프리미엄 디자인의 접착 타입 바닥재 타일 개발 등이 있다.

[표 7] 동사의 연구개발비용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 항목             | 2021  | 2022  | 2023  |
|----------------|-------|-------|-------|
| 연구개발비용         | 715.4 | 617.2 | 649.4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2.06  | 1.71  | 1.84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NICE디앤비 재구성

## IV. 재무분석

## 2023년 매출 정체 및 영업수익성 개선세

2023년 건축자재 단가 하락 및 수출 감소에 따라 매출 정체를 보였으나, 원가 및 경비 축소로 영업수익성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1년과 2022년 매출 성장세 지속, 2023년 건축자재 단가 하락 및 수출 감소로 매출 정체

동사의 건축자재 사업은 전체 매출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으로, 건축자재 매출에 따라 최근 3개년간 동사의 매출은 등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전년 대비 13.9% 증가한 34,597.9억 원, 2022년 전년 대비 4.4% 증가한 36,111.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며 외형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PVC 바닥재 가격 하락 및 건축자재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35,258.1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며 외형 정체를 나타냈다.

한편, 2024년 1분기 매출은 8,494.6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총매출액의 24.1%에 해당하고, 전년 동기 8,403.8억 원 대비 1.1% 증가한 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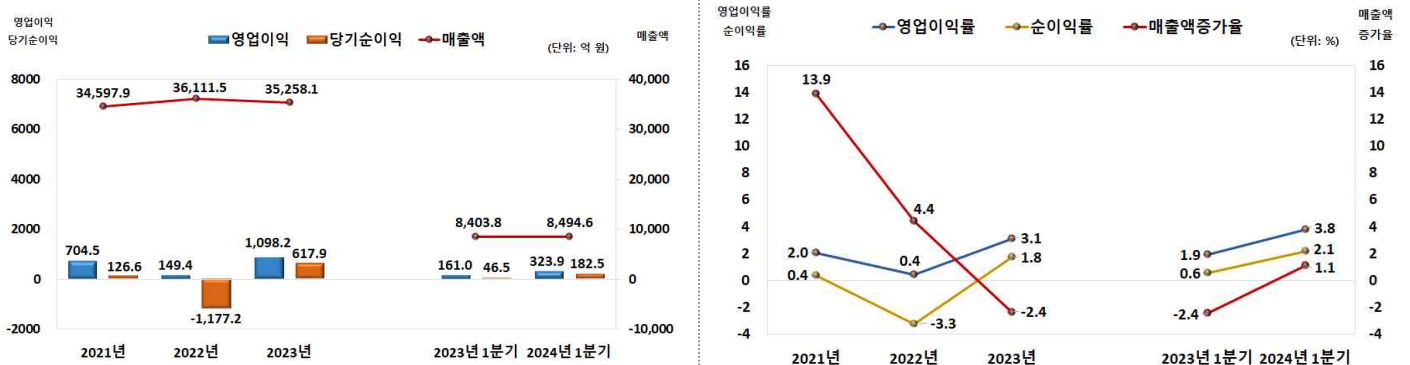
## ■ 2023년 원가 및 경비부담 축소로 영업수익성 개선세

2021년 영업이익률 2.0%(영업이익 704.5억 원)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매출 증가를 통한 판관비 부담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0.4%(영업이익 149.4억 원)로 하락해 영업수익성이 약화되었다. 이후 2023년 매출 외형은 정체를 보였으나, 원가 및 경비 축소를 통해 영업이익률 3.1%(영업이익 1,098.2억 원)를 기록하며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24년 1분기는 영업이익률 3.8%(영업이익 323.9억 원)를 기록해 전년과 비슷한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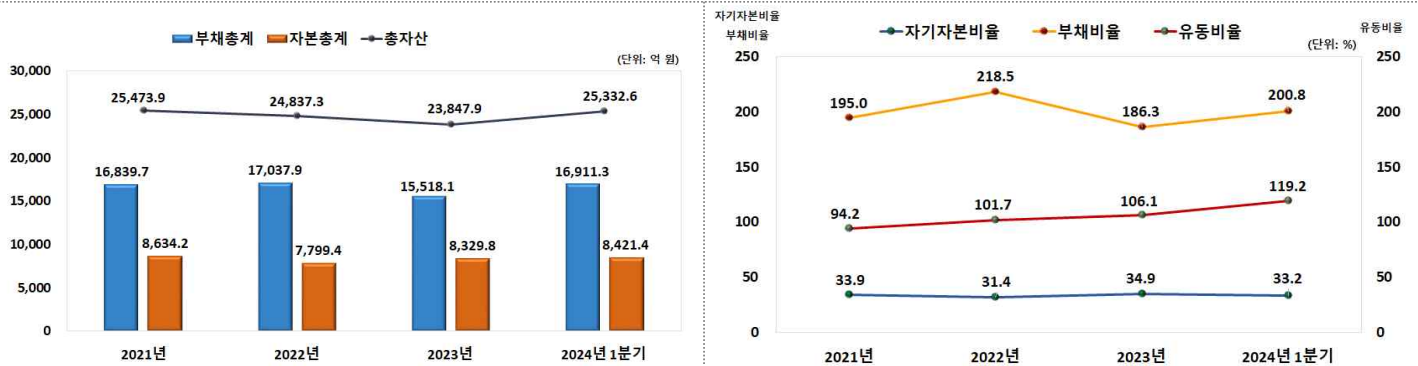
## ■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견지

2022년 장기차입금 조달로 부채 규모가 확대되며 부채비율이 전년 195.0%에서 2022년 218.5%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순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차입금 상환을 통한 부채 규모 축소에 힘입어 2023년 부채비율이 186.3%로 하락하는 등 전년 대비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된 양상을 보였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견지하였다. 한편, 2024년 1분기 말 부채비율은 200.8%로 기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최근 3개년 간 유동비율은 2021년 94.2%, 2022년 101.7%, 2023년 106.1%로 큰 변동 없이 100% 내외의 무난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2024년 1분기 말 119.2%로 소폭 개선을 보였다.

[그림 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표 8]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 항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3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
| 매출액       | 34,597.9 | 36,111.5 | 35,258.1 | 8,403.8   | 8,494.6   |
| 매출액증가율(%) | 13.9     | 4.4      | -2.4     | -2.4      | 1.1       |
| 영업이익      | 704.5    | 149.4    | 1,098.2  | 161.0     | 323.9     |
| 영업이익률(%)  | 2.0      | 0.4      | 3.1      | 1.9       | 3.8       |
| 순이익       | 126.6    | -1,177.2 | 617.9    | 46.5      | 182.5     |
| 순이익률(%)   | 0.4      | -3.3     | 1.8      | 0.6       | 2.1       |
| 부채총계      | 16,839.7 | 17,037.9 | 15,518.1 | 17,656.9  | 16,911.3  |
| 자본총계      | 8,634.2  | 7,799.4  | 8,329.8  | 7,876.8   | 8,421.4   |
| 총자산       | 25,473.9 | 24,837.3 | 23,847.9 | 25,533.7  | 25,332.6  |
| 유동비율(%)   | 94.2     | 101.7    | 106.1    | 105.7     | 119.2     |
| 부채비율(%)   | 195.0    | 218.5    | 186.3    | 224.2     | 200.8     |
| 자기자본비율(%) | 33.9     | 31.4     | 34.9     | 30.8      | 33.2      |
| 영업현금흐름    | 1,307.3  | 720.0    | 3,713.4  | 1,447.5   | 157.2     |
| 투자현금흐름    | -1,473.0 | -1,808.4 | -573.8   | -401.0    | -900.5    |
| 재무현금흐름    | -819.1   | 677.7    | -2,541.5 | -363.3    | 849.8     |
| 기말 현금     | 2,221.7  | 1,812.5  | 2,407.3  | 2,508.2   | 2,484.4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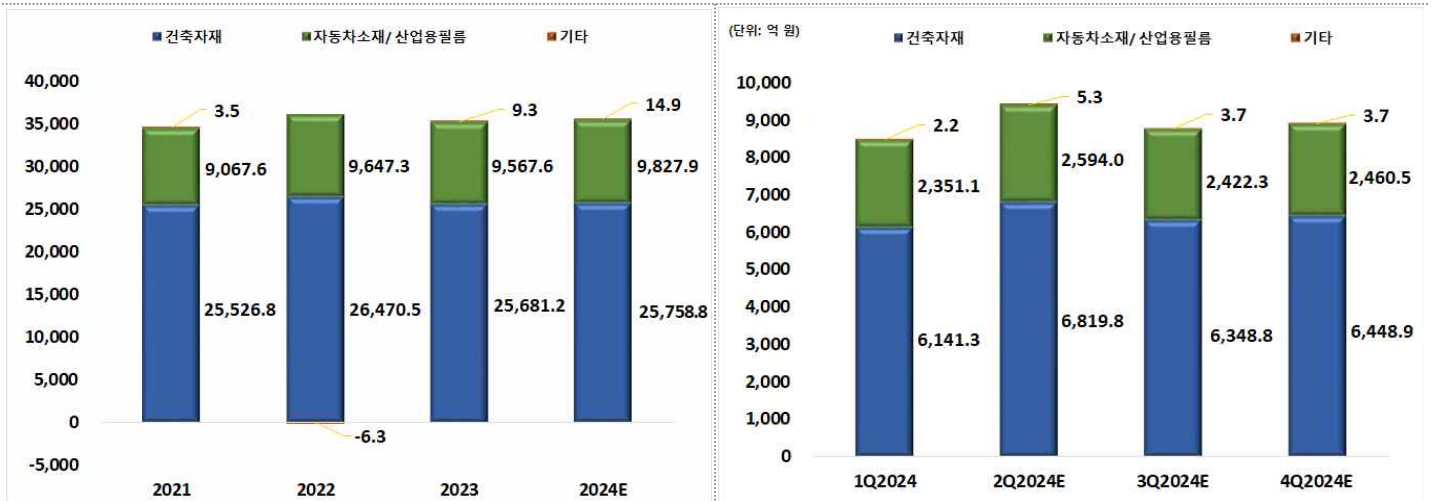
##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주요 사업인 건축자재 사업의 매출 영향에 따라 최근 3개년간(2021~2023년) 소폭의 매출 등락세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실적을 기록한 바, 2024년에도 큰 변동없이 전년과 비슷한 매출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사는 견고한 건축자재,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용 필름 등의 판매량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제품군 출시, B2B 사업 확장, 고기능성 신제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 발전 및 신제품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성장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다.

[그림 8] 동사의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표 9]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 항목           | 2021     | 2022     | 2023     | 2024E    | 1Q2024  | 2Q2024E | 3Q2024E | 4Q2024E |
|--------------|----------|----------|----------|----------|---------|---------|---------|---------|
| 매출액          | 34,597.9 | 36,111.5 | 35,258.1 | 35,601.6 | 8,494.6 | 9,419.1 | 8,774.8 | 8,913.1 |
| 건축자재         | 25,526.8 | 26,470.5 | 25,681.2 | 25,758.8 | 6,141.3 | 6,819.8 | 6,348.8 | 6,448.9 |
| 자동차소재/ 산업용필름 | 9,067.6  | 9,647.3  | 9,567.6  | 9,827.9  | 2,351.1 | 2,594.0 | 2,422.3 | 2,460.5 |
| 기타           | 3.5      | -6.3     | 9.3      | 14.9     | 2.2     | 5.3     | 3.7     | 3.7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건축자재 및 대형 인테리어 제품 전시장을 통한 B2B 시장 확대 추진 중

동사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엔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제품 대형 전시장 ‘론첼 갤러리’를 오픈하였다. 동사의 자체 최고급 브랜드 ‘론첼’, ‘페네스트’, 독점 계약 브랜드 ‘쿠치네 루베’, ‘라스텔리’ 등 여러 제품을 전시하여 B2B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 ■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제품 관련 대형 전시장 오픈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둔화와 더불어 금리 인상, 건축비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동사는 신축 분양 시장의 침체와 개보수 시장의 주택 거래량 부진에 따라 수요 확보를 위해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B2B 고객 대상 하이엔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제품 전시장 ‘론첼 갤러리(LONCHEL Gallery)’를 오픈했다.

‘론첼(LONCHEL)’은 외벽을 페인트가 아닌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록 방식의 시공으로 미적 효과와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철제 난간대 대신 유리 난간대를 사용해 외부 뷰를 개선한 동사의 최고급 시스템 창호 브랜드이다. CORNING社의 ATG(Architectural Technical Glazing) 제품을 적용해 기존 삼복층유리보다 슬림하고 가벼우며, 두 겹의 은(Ag) 코팅으로 단열 성능을 높인 기능성 로이(Low-e) 유리를 사용하여 단열 성능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개폐방식을 도입하여 창의적 건축물을 현실화하고, 최고 4m 높이의 초대형 창 제작도 가능하게 만든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페네스트(Fenest)’를 전시했다. 페네스트는 동사가 2024년 출시한 제품으로 리조트·호텔·고급 주거단지로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 제품이다. 이외에도 동사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탈리아 주방가구 브랜드 ‘쿠치네 루베(Cucine LUBE)’와 ‘라스텔리(Rastelli)’ 등 소비자들의 유럽형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업계 관계자들 만족시키는 제품들을 전시하였다.

동사는 론첼 갤러리 오픈을 통해 건설사·시행사 등 B2B 고객 대상 영업 강화와 하이엔드 건축자재 시장 공략을 위한 강화 거점 마련을 통해 B2B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림 9] 동사 론첼 창호 및 론첼 갤러리 사진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LX하우시스(108670)

증권사 투자의견

| 작성기관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작성일 |
|---------|------|------|-----|
| -       | -    | -    | -   |
| 투자의견 없음 |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4.08.06.)

최근 6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 기업명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
| LX하우시스 | X      | X      | X      |